

한마음 한몸



SPECIAL

부활의 삶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2016. 3. 통권 29호

One-Body One-Spirit MAGAZINE
vol. 29 / Spring / www.obos.or.kr



CONTENTS

⊕ SPECIAL

- 3 부활의 삶
- 6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 HOPE

- 8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죠?”
- 10 네팔에서 불어온 봄바람 같은 편지

☺ NOW

- 12 2016년에도 지구촌 곳곳의 이웃을 품으며
- 14 부룬디 프로젝트, 현재 상황은요
- 16 나눔은 서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 18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깜뽕고 마을
- 19 본부 새 소식

😊 TOGETHER

- 20 행복이 찾아오는 고소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 22 생애첫기부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COVER STORY



나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끝에서 새 생명과 희망이 태어납니다.

통권 29호 | 봄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6년 3월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



정현수 요한보스코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소장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영화 ‘부활’ 시사회를 다녀왔다. 사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던 강렬한 이미지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진이 만든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개봉되기만을 기다리던 작품이었다.

영화는 신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로마군인,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았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고 돌무덤에 봉인까지 한 백인대장이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초점은 관객에게로 옮겨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백인대장 클라비우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관 루시우스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는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부활을 증언하던 제자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던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던 초점은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에게로 옮겨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새해를 맞이했다는 설렘이 채 가시지도 않은 1월의 어느 날 ‘전 세계 27명에게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주고 떠난 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네티즌과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미국 유학 중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제주 출신 19세 여학생 김유나 양이 먼 이국땅에서 전 세계 27명에게 새 삶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유나 양은 평소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왔고, 유나 양의 부모들도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고민 끝에 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장기기증은 생애 마지막 순간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숭고한 생명의 나눔이다.”

유나 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유나가 제대로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것 같아. 오늘 유나의 심장은 다른 이에게 이식되면서 숨을 쉬겠지. 그래도 어딘가에서 유나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 같아. 엄마는 늘 널 위해 기도한다. 사랑한다. 유나야, 사랑해.”라고 전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장기기증은 생애 마지막 순간 선물로 받은 하느님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숭고한 생명의 나눔이다. 살아서는 헌혈 및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뇌사 장기기증 등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며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죽은 뒤의 장기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헌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96항).’고 가르치고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생명의 복음」 회칙을 통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웅적인 행위들 중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기증”이라고 사후 장기기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회가 생명나눔을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나눔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생명나눔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에 교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과 윤리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생명나눔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고 있다. “이 희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 자비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로 우리는 이 시기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자비의 얼굴 17항)” 하겠다. 이에 모든 이에게 열심히 신앙의 실천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같은 생명나눔운동에의 참여를 적극 권고드리는 바이다. 생명나눔이야말로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체성사의 삶을 행하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내며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되살아나는 모순된 두 가지 일을 목격한 백인대장 클라비우스의 마지막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건 확실하지. 내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 ㊦

장기기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기기증은 뇌사 시 기증과 사망 후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 시에는 신장, 간장, 심장, 폐, 취장, 췌도, 소장, 안구(각막) 등의 기증이 가능하며, 사망 후에는 안구(각막)의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 중 안구(각막)기증의 경우는 사후 6시간 이내에 연락을 주셔야 실제로 기증이 가능합니다.

Q2 기증하려면 가족동의가 필요한가요?

장기기증 희망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할 때는 법률에 따른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이 반대하시면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가족과 친구분들께 지속적으로 밝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나이가 많아도 기증이 되나요?

안구(각막) 기증의 경우, 나이와 무관합니다. 다른 장기들의 기증도 연령보다 개개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증 적합 여부는 사망 당시에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Q4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른 건가요?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아픈 이에게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본인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 시신기증 문의처: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병원

장기기증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본인인증 절차 후 등록가능 www.obos3042.or.kr

우편 또는 FAX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양식은 전화 1599-3042로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센터 방문등록

가톨릭생명나눔센터
전화: 1599-3042 | 장소: 1898 명동대성당(서울)

※ 등록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보내드립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 조혈모세포 400번째 실기증자 백수옥 씨 인터뷰 |

본부는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명을 살리는 조혈모세포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말까지 본부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3만9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수), 4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나눔과 축복의 주인공, 400번째 기증자 백수옥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물세 살이고요.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백수옥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나눔 활동을 많이 하나요?

어떻게 조혈모세포 기증 서명을

하시게 되었나요?

학창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좋아했어요. 늘 정해진 시간보다 봉사시간이 많았죠. 대학에 입학해서는 사단법인 평화캠프 목포지부의 ‘콩세알 인연맺기학교’에서 장애아동 선생님이로 수업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하고 싶었는데 바쁜 전공 수업으로 그만두게 된 게 아쉬워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전 헌혈도 무서워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혈모세포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혈액 검사까지 했다고 하셔서 정말 의아했죠. 아마 친구들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증 서명을 했던 것 같아요.

조혈모세포 기증 요청 연락을

받았을 당시 심정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 후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쭙보니 전국에 저 포함해서 세 분이 일치하는데 저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수혜자가 50대 남성분이셔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100세 시대에 50세이면 정말 살아갈 날이 많은 거잖아요. 그분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찬 일이지요. 물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아주 반가워하시지는 않았지만, 기증 서명 자체가 제가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막상 병원에 가니 어땠나요?

무섭지는 않았나요?

무섭지는 않고요. 정말 신났어요(웃음).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VIP 병동에 입원해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험을 할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밥도 너무 맛있었고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간식도 가져다주셨어요. 침대도 폭신해서 잠도 잘 잤고요. 기증 걱정은 없었어요(웃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증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일단 기증 서명을 하고 나서 유전자 앞자리가 일치하면 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그 후에 기증 동의를 하면 유전자 뒷자리를 검사해요. 유전자가 모두 일치하면 기증자 상황과 환자분 건강상태에 맞춰 기증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 후 기증 한 달 전에 기증할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소변, 혈액 검사를 하게 돼요. 문제가 없으면 기증 하루 전에 입원을 하고요. 입원 3일 전부터 집과 가까운 병

원에서 골수 촉진제를 맞아요. 조혈모세포 기증은 보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5시간 걸렸습니다.

참, 기증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말이 있어요. 기증에 동의하고 나면 환자분이 기증자분의 세포를 잘 받아들이 수 있게 하려고 면역력을 확 낮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안 하겠다고 하시면 환자분이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기증해 주세요.

혹시 또다시 기증 요청이 오면

기증할 의사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기증 요청이 오면 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죠. 저로 인해 꺼져가는 생명의 촛불이 살아난다면 그분께도 축복이지만 저에게도 축복이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은 축복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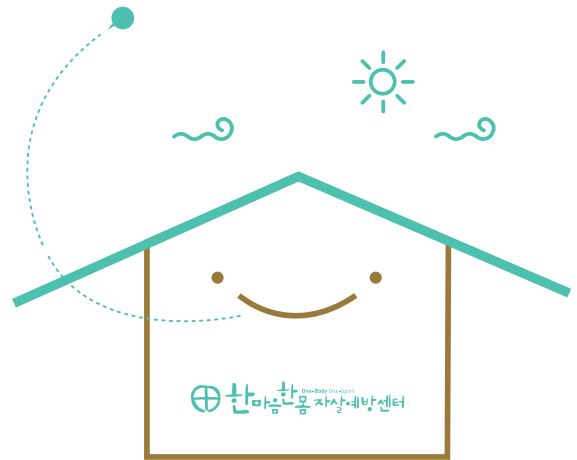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조혈모세포 기증은 많이 홍보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경우처럼 학교로 직접 오셔서 기증서명을 부탁하시기도 하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은 귀찮은 과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예전에 엄마가, 아빠가 아프신 분들을 도왔다고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 주세요! ☺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죠?”

한마음한몸 면접상담실 소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심리 상담소를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는 자기 이미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서야 상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자책감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이 정도도 이겨 내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상담소를 찾은 건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더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상담소를 찾았으니 성장을 향한 선택으로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한없이 못나고 부족한 실수투성이처럼 여겨져 삶을 저버리고 싶을 때 상담을 통해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또는 자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 상담실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신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1.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
2. 전화상담 1599-3079 (월~금, 10시~17시)
3. 면접상담 02)318-3079 (월~금, 10시~16시)

※ 자살 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센터 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대상: 우울하고 슬픈 기분, 부정적인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즐거움 감퇴, 체중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감소, 불면증 혹은 수면 과다, 무가치감,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심리적 증상으로 힘드신 분

상담비: 무료 / 개인 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 결정 (주 1회 50분)

신규 전화상담봉사자 모집 안내



천주교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 희망을 잃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 연결되어 함께해주실 전화상담봉사자**님을 모집합니다.

1 | 내용

대상 자살예방 전화상담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 / 나이 만 55세 이하 / 상담 관련 분야 활동 경험자 및 상담심리 관련 기본과목 이수자 우대

모집 인원 00명

봉사 시간 월 3회 이상 (1회 2시간 30분) /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17시 운영되며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봉사

봉사 내용 자살 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전화상담

근무 장소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내 전화상담실(재택근무 아님)

2 | 혜택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무급 활동이지만, 센터에서 시행하는 정기 교육과 자살예방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 신청방법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www.3079.or.kr에서 신규 전화상담 봉사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3079@3079.or.kr로 접수
접수기간: 2016년 5월 22일까지
E-mail(3079@3079.or.kr)로 신청

4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전형
(면접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 문의 02)2265-2952

6 | 위치 가톨릭회관 422호
(2호선 을지로3가역 또는 4호선 명동역)



상세내용은
www.3079.or.kr를
참고해주세요.

네팔에서 보내온 봄바람 같은 편지

한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자분들께,

우리 해피홈 식구들은 여러분의 보살핌 덕분에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후원자분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여러분의 오랜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우리의 시작은 매우 열악했지만, 한국의 수녀님들이 마련한 공간인 '해피홈'에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빈곤가구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건강관리, 교

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많은 아이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처음 '해피홈'을 시작하고 3~4개월간, 많지 않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각자 공부를 하고 간식을 먹은 후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교사와 함께 하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했던 책상, 의자, 교실도 점차 채워졌습니다.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수업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삶에 필요한 여러 이야기들을 배우고 나눕니다.

11명의 '해피홈' 교사와 직원들은 아이들 각자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을 시작할 때는 '성바오로 해피홈(어

Before



린이 대상 방과후 교실’만 있었지만, 이제는 ‘성바오로 홀(실내 다목적 공간)’과 ‘성바오로 몬테소리(유아 대상 어린이집)’가 있습니다. ‘성바오로 해피홈’에는 초등학교 어린이 교실이 10곳 있고, ‘성바오로 홀’과 ‘성바오로 몬테소리’에는 유아 대상 어린이 교실이 3곳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는 매일 커가고 있으며, 아이들의 삶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 시설은 이곳 ‘해피홈’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과 슬럼지역에서 무료캠프를 운영하여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지식을 넓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었고, LCD TV를 통해 매주 영화나 만화를 상

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도 가끔 이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나눠 줍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선행, 자아 발전을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수녀님들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최우선으로 삼은 결과이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와 직원들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로 갈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항상 밝은 미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 Manu, Alina Thapa Nepali

After



2016년에도 지구촌 곳곳의 이웃을 품으며

201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현황

풍요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믿기 어렵지만, 하루 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8억3600만 명,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가 연간 5700만 명, 5세 미만의 유아(영아) 사망자 수가 연간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항상 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지역사회가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회적 지원을 지양하며,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온전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룰 수 있게 도우며, 되풀이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 주신 사랑으로 지구촌 곳곳 가난한 이웃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커다란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

교육

교육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는 지역사회를 도와 학교나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개선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합니다.

- | | |
|----|--|
| 01 |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할 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미얀마 교사훈련프로그램 |
| 02 | 부족 내전으로 피해를진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 운영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미얀마 청소년 교육 지원 |
| 03 | 빈곤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키스탄 아동 교육 지원 |
| 04 |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파키스탄 여성 및 청년 대상 직업훈련 |
| 05 | 장애인들에 기술교육, 공동체 생활 지원 및 후속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지체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
| 06 | 수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등학교 건축 및 학습교재를 지원합니다.
부룬디 기헤루 지역 초등학교 건축 및 학습교재 지원 |

보건의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쉽게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로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치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 01**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빈민가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팔, 파키스탄 | 의료시설 운영 지원

- 02** HIV/AIDS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 희망심기 사업지원

통합생계 지원

빈곤이란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기르지 못하거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부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고군분투하는 영세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01** 소득창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방법을 알려줍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베냉, 케냐 | 지역개발사업

- 02** 자연재해 방지 교육과 시설 확립을 지원합니다.

미얀마 | 자연재해방지 및 지역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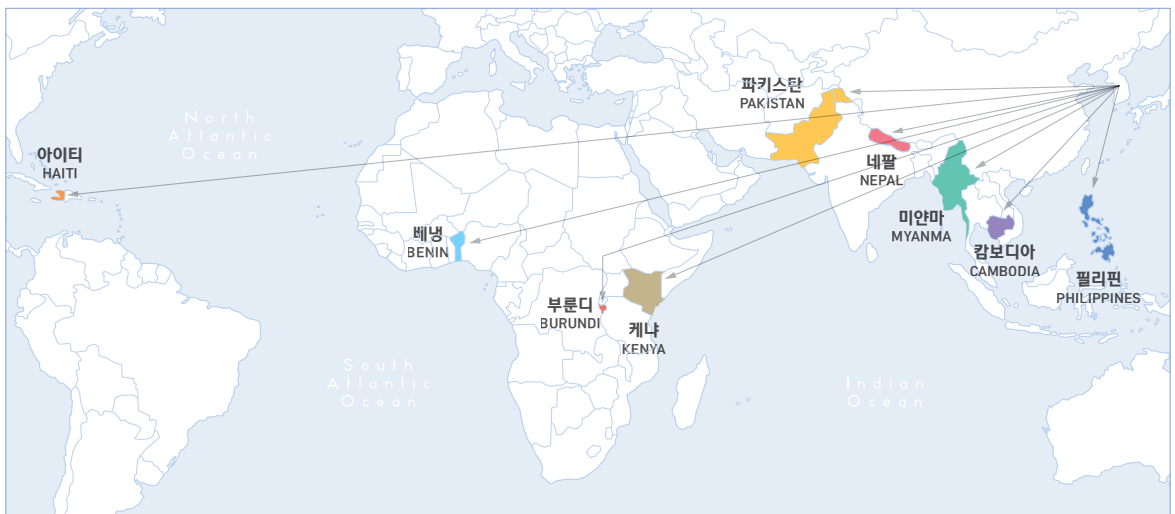
- 03**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과 적절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 지적장애인을 위한 생계 및 사회통합 사업

인도적 지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는 이 현장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 보금자리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일단 진정되면, 피해 주민들의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0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을 지원합니다.

아이티, 필리핀, 네팔 | 학교 재건 및 주거 복원 지원



부룬디 프로젝트, 현재 상황은요

총 나눔인원



701명

총 나눔금액



167,456,062원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진행된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에 701분이
참여해주셔서 총 167,456,062원이 모였습니다.
이 소중한 후원금은 부룬디 아이들에게 완성된
학교를 선물하는데 잘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2016 연말연시 캠페인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2’가 지난 2월 말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부룬디 기헤루 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부는 2014-2015 연말연시 캠페인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1’을 통해 부룬디 마캄바 지역 기헤루 마을에 약 45명의 아이들이 한번에 수업할 수 있는 교실 6개를 완공했습니다. 완공된 이 6개의 교실에서는 현재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총 54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은 벽돌, 모래, 시멘트, 물이 되어 올 한해 교실 3개와 아이들이 사용할 화장실, 운동장, 놀이터와 교무실, 빗물을 활용한 수도시설 등을 마련하는 데 지원될 계획입니다. 중장비가 없어 비록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고 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조금씩 학교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부룬디 기헤루 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에릭이 전하는 기헤루 초등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국의 후원자 여러분.
저는 기헤루 초등학교에 다니는
에릭이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 학교와 교실이 생긴 지
벌써 1년이 되어가요.



이곳에서 제 동생과 저는 각각
오전, 오후 수업에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직 학교 앞에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곧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생긴대요.



화장실과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될게요!

나눔은 서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홍보대사 서현진(가브리엘라)씨 인터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
하는 여러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홍보대사로 위
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배우 서현진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특별히 서
현진 씨는 지난 2016년 2월, 띠앗
누리 20기에 참여하여 스태프로 봉
사하기도 했는데요. 차기 드라마를
준비 중인 현장에서 서현진 씨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마음한몸 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로 활동하
고 있는 서현진(가브리엘라)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홍보대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2005년도에 몽골로 띠
앗누리 청년 단기봉사 캠프를 다녀
왔어요. 2008년도에는 캄보디아로

지도자 워크숍 캠프를 다녀왔고요.
본부와의 인연은 전부터 있던 셈이
죠. 그러다 제가 본격적으로 드라마
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부에서
홍보대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나눔활동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감히 제가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둔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년 성서캠프라는 곳에 같이 갔던 조원들끼리 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보육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놀이봉사를 1년 정도 했고요. 띠앗누리로 같이 갔던 친구들과 가끔 노숙자들을 위한 밥차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 2월에 캄보디아 깜뽕꼬 마을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스태프로 참여하셨는데, 기존과 어떻게 달랐나요?

전에는 단원으로만 두 번 가봤어요. 단원들은 현지에서 어떤 놀이를 할지, 어떤 작업 활동을 할지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스태프는 그걸 보조해요. 일손이 모자란 쪽에 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했었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몽골이나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난 이후 꾸준히 국제협력사업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현장에 가본지 너무 오래되어서 환기할 경험이 필요했어요. 또 하나는, 많이 공허했어요. 그동안 대중분들이 보시든 그렇지 않은 일을 씬 없이 하다가 이번이 거의 3년 반 만에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너무 심심했거든요. 인생이 재미가 없고 지루했어요. ‘왜?’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맴돌았어요. ‘왜 행복해야 하지?’라는 물음이 들 정도로요. 신앙적으로도 멀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어쩌면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다녀와서 보니 그 기대는 충족되었나요?

기대 아주 많이 했고요. 그만큼 받았어요. 다녀와서 느낀 건, 노동의 중요성? (웃음) 정말 현장에서는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자는 스케줄의 반복이거든요. 먹으려면 일해야 해요. 참된 노동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었죠. 단순한 삶에서 얻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사 시간도 정말 좋았는데요. 강론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그들 옆에서 내 마음의 가난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공감했던 것 같아요. 한 필리핀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작은 행동도 하느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니, 네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뿐’이라고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무료하다가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활동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나요?

활동 하나하나도 소중했지만, 상황보다는 어떤 풍경이 기억나요. 활동지에 2층짜리 성당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평일 낮에 야외에서 미사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야외와의 구분을 최소화한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서 미사 시간에 창을 통해서 보이는 논 같은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이 글을 보실 한마음한몸의 후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대단히 많은 참여를 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직접 해외로 가는 것보다 그냥 돈으로만 후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이번에 다녀와 보니 너무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 타성에 젖어서 정기 기부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나눔의 현장에 가서 손을 잡고 눈을 보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에 따라 나눔의 행보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부만으로도 충분히 크지만, 한 번쯤은 체험으로라도 현장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빙수 같은 디저트가 있는데, 봉하임이었나?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라고 말하며 봉하임 사진을 찾는 서현진 씨. 이야기를 해보니 ‘배우’, ‘홍보대사’보다는, 그저 ‘얼굴도 마음도 예쁘고 신실한 친구’와 같은 인상이 더 진하게 자리 잡는 듯합니다. 성숙한 배우로, 나눔의 선두주자로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 서현진 씨를 축하합니다. ☺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깜뽕꼬 마을

김채은(띠앗누리 20기)



현지 활동 캄보디아 깜뽕꼬 지역

기간 2016. 1. 19.(화)~2. 2.(화)

2016년 1월 19일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 두 시간 후면 도착이다. 신부님께서 띠앗누리를 통해 얻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난 아직 무엇을 얻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16년 1월 21일

오늘은 깜뽕꼬 마을에서 눈을 떴다. 어제 깜뽕꼬 마을에 도착한 우리를 이곳 아이들이 반겨주어 너무 고마웠다. 벌레도 많고 더워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여기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같이 온 20기 언니, 오빠들도 좋은 분들인 것 같다. 막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아까 작업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1월 25일

캄보디아에서의 생활도 벌써 일주일째! 오늘은 집 짓는 작업을 하느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질을 해봤는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하하. 이곳에 오니 한국에선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것들이 감사하고 소중한하다.

2016년 1월 27일

캄보디아에 와서 참 많이 울었다. 아이들과 이제 정이 들었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서 남몰래 울음을 참은 적도 많다. 때제 기도나 미사 때, 조용히 혼자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났다. 감사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졌다. 난 정말 축복받은 아이이다.

2016년 1월 29일

캄보디아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아이들을 만난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헤어진 오늘은 종일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 마지막 문화 교류로 팔찌 만들기를 했는데, 이곳 아이들은 간단한 활동에도 즐거워하고 욕심도 없다. 더 해줄 수 없는 게 아쉬웠다. 오후엔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입혀주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싶다.

2016년 2월 1일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 나는 반티 프리업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나 나중엔 내가 더 즐거웠고 행복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짜증난다는 말을 자주하곤 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다섯 번도 안 한 것 같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빨리 적응해야지!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다.' 하고 생각하곤 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깜뽕꼬에서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 열심히 작업하던 시간, 깜뽕꼬를 떠나던 그 날의 기억들이 벌써 꿈처럼 느껴진다. 사실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나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 분들이 행복했다면 그 자체로 이번 띠앗누리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여기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싶다. ☺

띠앗누리 20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0기는 빈곤과 지역 공동체, 인권과 평화, 빈곤과 기후변화, 물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지난 1/19(화)~2/2(화) 동안 캄보디아 깜뽕꼬 마을과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현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부 새 소식

OBOS NEWS

● 장기기증 홍보 애니메이션

<아주 특별한 선물> 제작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클레이 애니메이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영상은 실제 기증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증자와 이식수혜자의 주는 사랑과 받는 감사를 담은 본편과 장기기증을 안내하는 부록영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교구 본당을 비롯해 전국 교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 배포문의: 02)727-2270



●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0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0기가 지난 2/16(화)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20기는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1/19(화)~2/2(화)까지, 캄보디아 캄땡고 마을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후원자를 위한 감사미사 봉헌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주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적 인정보상의 하나로 지난 3월 4일(금) 직원들이 모여 '후원자를 위한 감사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자님과 같은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더욱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285, 2288

치료비 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6. 1~3. | 단위: 만 원

구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장OO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서울아산병원	900
	바OOO	감각성경성 난청	부천성모병원	800
	손OO	고환수염	서울대병원	1,000
	정OO	난소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300
	무OOO	대퇴부 골절	늘푸른요양병원	240
	최O	뇌출혈	88병원	900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이OO	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정OO	간세포암(간이식)	인천성모병원	900
	임OO	알콜성 간경변(간이식)	충남대병원	900
	민OO	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고OO	신장이식	고대안산병원	900
	김OO	급성골수성백혈병	해운대백병원	1,000
긴급지원사업	장O	연골육종	부천성모병원	900
	편OO	알콜 의존성 증후군	카프성모병원	104

● 2016 자비의 희년, 범국민 생명나눔 연중 캠페인

지난 2/15(월)~17(수)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7주기를 맞아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생명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이 미지화한 포스터 전시 및 "장기기증 Q&A" 이벤트를 실시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

전 지구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과 자연사회의 발전을 위해 본부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정혜(공공행정/국제개발)단원이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 파견되었던 정다운(행정/홍보)단원도 재파견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현장방문

1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와 몽골 사업장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살예방전문가교육 'ASIST' 및 게이트키퍼교육 'QPR' 실시

지난 1/7(목)~8(금), 2일간 게이트키퍼 교육의 심화과정인 ASIST 자살예방전문가교육이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18(목), 게이트키퍼교육인 QPR기본과정에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고소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나눔기업 171호 ‘꼬숨’



나눔가게·나눔기업

꼬숨

대표 박용자

홈페이지 ggosom.co.kr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길 13 1층

문의 070-4797-7328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눔가게·나눔기업은 나눔기업 171호 꼬숨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고소한 향기’를 모토로 하는 꼬숨은,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깨를 볶는 듯한 고소한 행복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난 10월 꼬숨의 젊은 대표 최요식(33, 요셉)님과 그 아내 박연주(34, 마리아)님이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본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돌을 맞아 아이의 이름으로 생애첫기부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과 나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수제 강정을 만듭니다

꼬숨은 우리나라 전통 과자인 강정을 연구하여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인 최요식님의 어머님께서 주변에 입소문이 날 정도로 강정을 잘 만드셨던 것이 아들의 조리/식품 전공과 결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업한 지 이제 갓 2년을 넘긴 꼬숨은 아직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꾸준히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강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띠앗누리에서 시작한 인연이 생애첫기부까지

최요식님과 박연주님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띠앗누리를 통해 서로를 만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처음 띠앗누리 단원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봉사하러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가서는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사랑받고 온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띠앗누리 5기로 몽골에 함께 다녀온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입니다.

띠앗누리를 통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활동을 알게 되어 계속 소식을 접해 온 최요식님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꼭 본부를 통해 나눔활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아 이 기념일에 맞추어 생애첫기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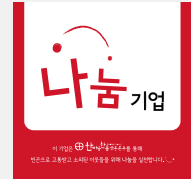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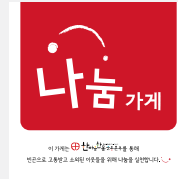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나눔

이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띠앗누리를 다녀오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부금 전달식을 마친 부부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의 첫기부 자리가 나중에 아이 스스로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저희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 지구촌 빈곤퇴치 분야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분들은 저희가 직접 도움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나눔에 대한 부부의 깊은 마음이 봄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소소하게 베풀면서 기분 좋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다는 최요식, 박연주 부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 곁에 있다 보니, 어느새 고소한 행복의 내음이 공기 중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

나눔가게· 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2016년도 봄호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박해울 루치아노 & 박소울 릴리안

생애첫기부

강서준 니콜라오 2014.12.20생 父 강동욱 母 김민경 | **강이준 베드로** 2015.01.28생 父 강석훈 母 이린 | **경서진 헬레나** 2015.01.05생 父 경관수 母 임희지 | **고건오** 2015.01.02생 父 고성령 母 박은영 | **고연우 켄마** 2013.05.10생 父 고규봉 母 이경민 | **구자균** 2015.01.12생 父 구동회 母 박민지 | **권다현** 2014.12.16생 父 권민혁 母 황애란 | **권대영** 2015.02.16생 父 권경만 母 이유진 | **권도윤 임마누엘** 2015.04.05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권승현** 2011.11.07생 父 권민혁 母 황애란 | **김가람** 2015.10.26생 父 김성호 母 이은화 | **김그림 에스텔** 2012.08.19생 父 김형구 母 정지은 | **김남우 토마스모어** 2015.02.06생 父 김기수 母 오혜정 | **김단아** 2014.03.17생 父 김병철 母 구인희 | **김도연 보나** 2015.01.09생 父 김영광 母 김혜진 | **김도하** 2015.01.19생 父 김용진 母 원주연 | **김도훈** 2015.03.02생 父 김홍중 母 강지영 | **김두은** 2015.06.16생 父 김은기 母 노경림 | **김범준** 2014.02.17생 父 김병원 母 이주현 | **김서준** 2015.01.09생 父 김민한 母 류주영 | **김서후 루카** 2015.01.01생 父 김태형 母 김필영 | **김세은** 2015.06.16생 父 김은기 母 노경림 | **김시와 마리스텔라** 2009.09.03생 父 김형구 母 정지은 | **김시운** 2015.09.02생 父 김영준 母 이혜연 | **김은총** 2015.02.24생 父 김명규 母 최인경 | **김주아 스텔라** 2015.10.09생 父 김형석 母 이지은 |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4.02.18생 父 김기홍 母 박수영 | **김지아** 2015.04.20생 父 김진구 母 김정은 | **김지안** 2014.12.11생 父 김준호 母 정민경 | **김지영 노엘라** 2014.12.25생 父 김영기 母 남상주 | **김지우** 2014.12.14생 父 김영민 母 김기영 | **김지유** 2015.09.11생 父 김종욱 母 이은정 | **김지호 엘리사벳앤씨튼** 2015.01.05생 父 김윤철 母 이길현 | **김진후** 2015.12.12생 父 김정민 母 손영지 | **김태겸 바오로** 2009.12.15생 父 김동하 母 문지영 | **김태연 아델리나** 2014.10.28생 父 김성준 母 민숙경 | **김태우 아델리아** 2014.12.07생 父 김준홍 母 최은정 | **김필립 필립보** 2015.09.15생 父 김현우 母 김윤경 | **김하은** 2015.08.07생 父 김를 母 전진선 | **류연서** 2014.03.11생 父 류만형 母 김소연 | **박서진 프란치스코** 2015.01.08생 父 박보현 母 서지은 | **박소울 릴리안** 2014.03.31생 父 박민우 母 이경진 | **박시연** 2015.02.27생 父 박순열 母 이서연 | **박재익 도미니코** 2014.01.06생 父 박우성 母 최효진 | **박주원** 2015.02.06생 父 박장신 母 한혜경 | **박준후** 2015.02.24생 父 박진우 母 박지은 | **박태웅 사도요한** 2010.11.20생 父 박경민 母 장수임 | **백재림 안토니아** 2015.01.18생 父 백정우 母 정혜인 | **백찬열 바오로** 2015.01.31생 父 백재원 母 곽미경 | **송성준** 2013.11.17생 父 송민근 母 김은진 | **송성호** 2011.04.27생 父 송민근 母 김은진 | **송승호** 2015.02.04생 父 송시문 母 김세은 | **신민혁 라파엘** 2015.03.02생 父 신동우 母 김경선 | **신세림** 2015.10.21생 父 신우일 母 백지현 | **신아성** 2014.07.21생 父 신종혁 母 박진희 | **신예원 안나** 2015.01.10생 父 신종혁 母 박다미 | **신주아** 2015.01.22생 父 신영현 母 조세영 | **신준서** 2009.05.27생 父 신영현 母 조세영 | **심이현** 2015.09.26생 父 심정완 母 이문경 | **안제니 마리스텔라** 2014.12.21생 父 안주희 母 이지영 | **안진우 안나** 2014.09.19생 父 안성호 母 이상은 | **양호준** 2015.02.26생 父 양준형 母 김소현 | **오승태** 2006.07.15생 父 오재준 母 이현정 | **오연우** 2014.11.25생 父 오경석 母 오규진 | **오윤성** 2015.01.30생 父 오항석 母 이은희 | **우승균** 2009.12.08생 父 우찬희 母 이현정 | **우지운** 2015.02.27생 父 우찬희 母 이현정 | **원도한 펠릭스** 2015.02.21생 父 원경태 母 이현주 | **유현서 에테니아** 2015.01.16생 父 유도원 母 이주인 | **윤민성 루카** 2015.02.07생 父 윤영상 母 안수미 | **윤산하** 2006.08.23생 父 윤준호 母 이자영 | **윤서준 바오로** 2014.12.12생 父 윤태호 母 김민혜 | **윤서후 프란치스코** 2015.02.26생 父 윤정호 母 오세덕 | **이다빈** 2014.12.16생 父 이경수 母 전영민 | **이다현** 2016.01.09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이산** 2014.12.05생 父 이상무 母 이진실 | **이서은** 2015.02.02생 父 이형규 母 김아란 | **이서연 로사** 2012.08.23생 父 이영섭 母 안현지 | **이서현 엘리사벳** 2015.01.12생 父 이상대 母 양승은 | **이승연** 2015.01.09생 父 이선식 母 송선 | **이승수** 1999.12.23생 父 이수원 母 박혜숙 | **이예준 다니엘** 2015.02.21생 父 이규행 母 김윤희 | **이유나** 2014.12.08생 父 이동혁 母 전주진 | **이은규** 2014.12.25생 父 이원희 母 조혜연 | **이정훈** 2015.01.29생 父 이진우 母 배정화 | **이주혁 노엘** 2014.12.20생 父 이상호 母 윤주희 | **이채영** 2001.09.04생 父 이인학 母 박주은 | **이혜원** 2015.1.31생 父 이한수 母 한수지 | **이호을** 2011.02.11생 父 이광윤 母 이미연 | **임경민** 2011.01.09생 父 임주환 母 정명희 | **임예준 루카** 2015.02.11생 父 임경훈 母 신경민 | **임정훈 아브라함** 2010.01.23생 父 임철홍 母 최승란 | **임현정** 2006.11.08생 父 임성진 母 하주현 | **임혜은 헬리나** 2009.09.08생 父 임근성 母 고세아 | **임희진** 2009.07.19생 父 임성진 母 하주현 | **장서하 베네티도** 2015.01.26생 父 장동훈 母 유수진 | **전서준** 2015.11.04생 父 전태민 母 이정현 | **전예진 라파엘라** 2014.11.28생 父 전성희 母 한은지 | **전주원** 2015.01.05생 父 전진호 母 임민경 | **전혜아 가브리엘라** 2015.02.01생 父 전창엽 母 윤수진 | **정아을** 2015.02.13생 父 정혁준 母 권혜진 | **정에서 스텔라** 2014.02.06생 父 정지선 母 박연정 | **조아인 엘리야** 2015.01.24생 父 조우철 母 이세리 | **조인** 2015.02.20생 父 조하석 母 황재희 | **차은아** 2015.06.29생 父 차원철 母 최서연 | **최라엘** 2014.12.23생 父 최종혁 母 김효진 | **최서연** 2015.03.14생 父 최영현 母 이우리 | **최서현** 2015.01.01생 父 최환영 母 공명수 | **최유진 글로리아** 2015.01.12생 父 최선욱 母 안아름 | **튼아·숙이(태명)** 父 김무호 母 최민영 | **하유진 소피아** 2011.03.01생 父 하효신 母 이지민 | **하준모 토마스 아퀴나스** 2015.01.18생 父 하치원 母 신해리 | **한시운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 **한우주** 2015.02.08생 父 한주훈 母 김유리 | **한종을 천주의 성 요한** 2015.03.09생 父 한용규 母 김수연 | **한준우** 2015.09.01생 父 한찬교 母 임화진 | **현준우 그레고리오** 2015.01.24생 父 현정현 母 한은지 | **황서은** 2015.01.26생 父 황원택 母 홍민아 | **황서진 올리비아** 2015.06.15생 父 황수호 母 김가배 | **황여준** 2015.02.11생 父 황신익 母 김선희

두 번째 기부

강윤우 바오로 2014.01.17생 父 강영관 母 김현주 | **김도환 프랑코** 2013.03.14생 父 김기수 母 오혜정 | **김리우 올리안나** 2011.02.16생 父 김현수 母 임세정 | **김미가** 2013.06.12생 父 김수환 母 양정미 | **김민서** 2015.02.23생 父 김광익 母 김주연 | **김민준 프란치스코** 2014.02.06생 父 김호진 母 박주형 | **김민재 루피나** 2013.07.10생 父 김호진 母 안정민 | **김서운 데레사** 2012.09.22생 父 김도형 母 홍태이 | **김수호 도미니코** 2013.11.22생 父 김철홍 母 황인평 | **김재운 프란치스코** 2014.01.24생 父 김대희 母 조예림 | **김재은 야고보**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 **김재희 요한** 2013.12.14생 父 김대현 母 김태정 | **김지은 라파엘라** 2014.03.03생 父 김현승 母 김도연 | **김태극 요셉** 2014.03.01생 父 김준혁 母 김수영 | **김하준** 2013.08.31생 父 김주영 母 박태은 | **남경빈** 2006.02.15생 父 남영



김태국 요셉



황여준



고연우 젤마



김민서

육 모 황수연 | **남연우** 2012.01.24생 | 남상백 모 정서희 | **서도연 소화데레사** 2013.10.01생 | 서정주 모 이수진 | **송이재 테오도로** 2013.12.22생 | 송진우 모 유지애 | **안서영 안젤라** 2014.01.27생 | 안재성 모 이유은 | **오승현** 2013.10.04생 | 오재준 모 이현정 | **이준희** 2013.12.15생 | 이병한 모 임소현 | **이지유 로사리아** 2015.03.04생 | 이동훈 모 오은샘 | **정민주 엘리사벳** 2009.06.01생 | 정태훈 모 박의명 | **정연우** 2014.01.21생 | 정유석 모 신경하 | **조예나** 2003.01.15생 | 조영상 모 이가은 | **채지호 보나** 2010.12.13생 | 채정길 모 강정윤 | **최성은** 2014.01.13생 | 최용석 모 이수현 | **최예나** 2015.05.26생 | 최성훈 모 이승현 | **황민서 안젤라** 2011.01.29생 | 황성진 모 이자경 | **황민우 니콜라오** 2013.12.06생 | 황성진 모 이자경 | **황찬우** 2015.02.22생 | 황범석 모 안진희

세 번째 기부

강건우 2013.01.11생 | 강성민 모 김고은 | **강시우** 2013.01.11생 | 강성민 모 김고은 | **고서연** 2009.08.18생 | 고동신 모 김현미 | **기민우 요한** 2006.12.07생 | 기석권 모 박주원 | **김대용 치릴로** 2004.02.15생 | 김기태 모 최서윤 | **김리원** 2012.02.15생 | 김영진 모 이은경 | **김예은 리디아** 2012.10.26생 | 김성준 모 민숙경 | **김주호 세례자요한** 2007.05.25생 | 김재현 모 김귀라 | **김태근** 2014.01.06생 | 김진 모 이채형 | **김해은 세례자 요한** 2013.01.21생 | 김경운 모 박은선 | **류현우** 2012.03.08생 | 류만형 모 김소연 |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 박해은 모 김지연 | **박정현 젤투르다** 2014.01.20생 | 박진홍 모 이소현 | **박준현 디모테오** 2012.01.31생 | 박종연 모 김정은 | **신소윤** 2013.02.22생 | 신용석 모 이미정 | **심율** 2013.08.14생 | 심현보 모 김지은 | **오다민 안나** 2012.09.17생 | 오상무 모 하미선 | **오세인 라파엘라** 2010.01.11생 | 오상무 모 하미선 | **오은수** 2013.12.29생 | 오재필 모 김현영 | **윤종수 라파엘** 2003.01.18생 | 오윤영기 모 황지영 | **이수담 아네스** 2012.01.22생 | 이상환 모 조경희 | **이시은** 2012.12.01생 | 모안유진 | **이채원 에스텔** 2014.02.17생 | 이진호 모 정희경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 임치환 모 민지혜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 전진 모 홍은주 | **정가현** 2012.01.13생 | 정규진 모 이안섭 | **조민재 미카엘** 2013.01.14생 | 조준일 모 진민경 | **허상범 루카** 2014.01.11생 | 허대영 모 김정숙 | **홍준기** 2012.01.13생 | 홍성철 모 변정연

네 번째 기부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생 | 구성관 모 박해은 | **기정훈 그레고리오** 2010.01.02생 | 기석권 모 박주원 | **김주형 라파엘** 2006.11.28생 | 김성우 모 최정란 | **김지훈** 2011.12.04생 | 김남성 모 이예리 | **김지희 글라라** 2012.02.15생 | 김익균 모 김지영 | **민세윤** 2012.02.13생 | 민정재 모 이선영 | **박소원** 2012.03.05생 | 박진우 모 박지은 | **박소이** 2012.03.05생 | 박진우 모 박지은 | **오승우** 2012.02.15생 | 오세훈 모 송지혜 | **유건민** 2010.02.25생 | 유형석 모 이지원 | **유예성 다니엘** 2011.11.23생 | 유락준 모 윤미영 | **유예연 대진 안드레아** 2009.07.14생 | 유락준 모 윤미영 | **유효린 마리아피아** 2012.01.30생 | 윤태근 모 박소정 | **이신혁** 2010.12.21생 | 이현규 모 구혜경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 임치환 모 민지혜 | **임지유 아네스** 2012.01.31생 | 임경권 모 이정선 | **임지호 발렌티노** 2008.02.13생 | 임성익 모김미리 | **임진욱 사도요한** 2012.12.11생 | 임치환 모 민지혜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 전진 모 홍은주 | **최지민** 2012.01.29생 | 최상규 모 이승은

다섯 번째 기부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 권오준 모 임민정 | **권나윤 데레사** 2011.12.15생 | 권광호 모 김선영 | **김동륜 안토니오** 2011.01.17생 | 김현욱 모 한주희 |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 이병동 모 김혜원 | **임진욱 사도요한** 2012.12.11생 | 임치환 모 민지혜 | **정희원 돈보스코** 2010.11.22생 | 정다운 모 이승은

여섯 번째 기부

박성빈 2010.02.10생 | 박동현 모 정미영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 윤용덕 모 제민영 |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 이병동 모 김혜원

일곱 번째 기부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 | 정찬호 모 조은모 | **천승민 베드로다미아노** 2011.02.21생 | 천정우 모 강재민

기념일 기부

생일 기부 | **김신애** 1973.12.07생 | **오윤경 아네스** 1975.01.28생 | **오제영** 1980.02.19생 | **이여주 베로니카** 1979.01.23생 | **정행자** 1959.03.29생 | **하성대** 1955.07.20생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 **강인호 베드로&안미선** 글라라 결혼100일 | **고재인 시몬&김양희** 세실리아 결혼12주년 | **김동영 프란치스코&최은숙** 아네스 결혼7주년 | **김봉준&남상아** 결혼기념 | **김영현&박정선** 빅토리아 결혼2주년 | **김준겸&이지선** 짓파 결혼기념 | **김진석 요셉&이재원** 아네스 결혼기념 | **오승언 라파엘&김보민** 결혼기념 | **유지호 토마스 아퀴나스&이지민** 안젤라 결혼기념 | **이경호 안셀모&박지은** 세라피나 결혼25주년 | **이상호 토마&강미영** 안나 결혼3주년 | **정지선&곽연정** 크리스티나 결혼5주년 | **최지수 마르첼로&권애린** 젤마 결혼6주년

취업 기념 기부 | **강승현 수산나** | **박희정 로사리아**

멋진 팬들의 기부 | **비투비** 데뷔 4주년 | **비투비 임현식** 생일기념 | **신화** 데뷔 18주년

신부님의 사제서품기념 | **Fr. 한정관** 바오로

멋진 커플의 기부 | **김우식 유스티노&김윤주** 약혼기념 | **장권원&윤세라** 에밀리아나 크리스마스기념 | **허일희 루카&박경순** 안젤라 1000일기념

크리스마스기념 기부 | **김정현 마르첼로&정혜진** 도미니카&김지유 가족 | **유엠SK뉴네스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되어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외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방문하여 후원 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유무선 전화를 통해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신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